

축 사

원불교 제14대 경산 장응철 종법사님의 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원불교 100년을 앞두고 경산 종법사 재추대를 통해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이끌어 가려는 원불교 전 교도들의 염원에 성원을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는 절실하고 인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 또한 시급하기만 합니다. 불의와 불공정을 타파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 하는 숙제들은, 절실한 실천을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종교적으로 응답할 책무는 어느 교단이건 자유롭지 않을 것이기에, 오늘 뜻 깊은 추대를 계기로 인류의 행복을 위한 교단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원불교의 원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종교인에게는 커다란 귀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부터 한걸음 한걸음 성실한 노력이 모든 일에 기초하고 있으니 원불교가 운영하는 사회 곳곳의 단체는 지역 내에서도 모범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동력으로 현시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며 여러 분야에서 균형을 갖추어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도 원불교의 손길이 많이 닿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UN 내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교화를 펼쳐가는 모습은 세계가 한국 종교계를 호의로 바라보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불교는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종교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해왔던 그간의 중요한 역할과 협력은 모든 종교인들의 평화로 연결될 것이며, 이것이 사회로 확대되어 국민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산 종법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불교 100년을 맞아 ‘새로운 희망 원불교’로 더욱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